

대행 스님

불교라는 자체는 영원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아마도 일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지원의 여러분이 딴 데보다 수백 배가 작다 하더라도 작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주처를 알아서 길을 걸을 때에 그건 한 우주를 산 거와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듯 불교라는 자체는 영원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이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같이 응용하고 상응하고 작용하는, 그 모든 통신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생의 원리도 일체 만법의 기준이 되며 모든 마음들이, 전구는 다 다르지만 저 전력은 한 전력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듯이,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생명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타의에서 구하는 이치가 많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부처님이여!' 하고 바깥에서 찾는 것, '하나님이여! 주여!' 하고 바깥에서 찾는 것, 티베트 불교나 통일교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만히 보면 타의에서 구하는 건 전체가 다 기복이에요. 그것을 기복이라고 흉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집부터 전화를 놓고야 남의 집에서 전화 올 때를 바라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 법이죠?

나부터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각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벌어질 일도 없고 인과 법칙도 없을 거고 상대성 원리도 없을 거고 계발도 창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까닭에, 인연에 따라서 창조력을 기르면서 계발도 하고 성취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로부터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타의의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먼저 알아야 '타신'도 모두 둘이 아니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한 줄에 꿰여서 동시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세상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나의 긴박함으로 말미암아 참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 수, 화, 풍 이 자체의 근원이 아니었더라면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대두해서 발전할 수도 없거니와 밝게 살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이 왜 지수화풍으로 근원이 돼 있는가. 바탕이 돼 있는가. 그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바탕으로 인해서 광력도 태양력, 태양열도 또는 전력도 자력도 모두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발전과 계발과 창조를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모두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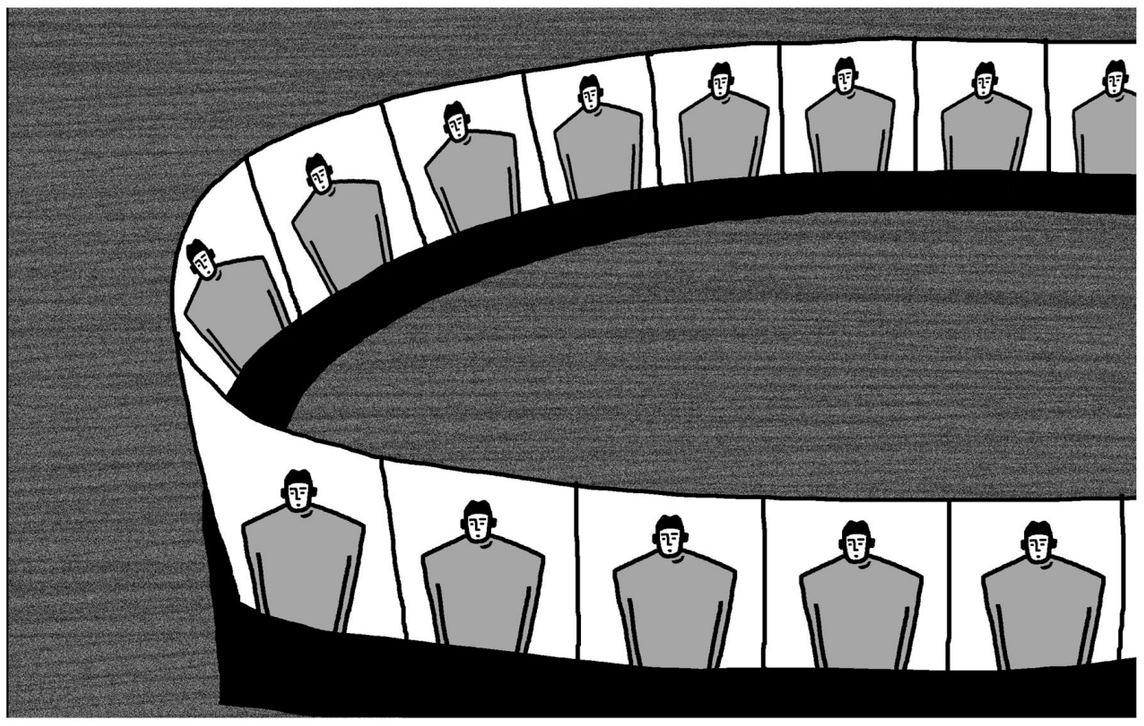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끌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 물과 흙과 불과 바람,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네 가지에 속한 물질입니다. 형상입니다. 그 현실의 몸, 육신이 아니었더라면 무효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낼 수가 없어도 목석입니다.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모두 바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하겠는데,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귓결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것이 다 자유자재하게끔 주어져 있다고 해도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런 걸 맛도 못 보고 이름도 듣지 못하고 작용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마디째입니다. 그게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관을 통해서 오신통이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천이통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무전통신기 역할을 합니다. 천안통, 이것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그것을 비유할 때에 뭘로 비유를 해야 좋겠습니까? 천체망원경이라고 해도 그거는 거기에 가당치도 않지만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는 천체를 보고도 남음이 있지만 육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마음의 눈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타심통, 이것을 탐지기라고 해도 비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남의 속을 뚫어지게 아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또 신족통은 팩시밀리라고 해도 비유가 됩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숙명통,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내 걸망에 담아 가지고 나온 업식에 따라서 솔솔 나오는 걸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과 선업이,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여러분 몸속에 지금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살아나가는 데 솔솔 나오는 것이 바로 숙명통입니다. 그거를 비유할 때는 컴퓨터라고 해도 됩니다. 컴퓨터에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바로 현실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까? 하하하….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그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은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 됐고 그것이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있는 자력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진통입니다. 그거를 비유하자면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비유가 됩니다. 속에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책정을 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게 분류돼서 원자에서 입자가 쭉 많이 나가듯이, 바깥에서 그렇게 들어오듯이 그러는 거를 결정을 하고 책정을 하는 그런 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진통의 모든 핵심적인 문제를 그걸로 비유해도 됩니다.

누진이라 하면 바로 우리 혹성의 바른쪽 왼쪽 두뇌의 작용 핵심! 핵심처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자 세계에서 잘 쓰고 있는 이름,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래서 '주, 인, 공'입니다, 공(空)! 주인 주(主), 사람 인(人), 즉 공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왜 공이라고 했을까? 주인의 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듣는 거나 보는 거나 가고 오는 거나, 먹는 거나 만나는 거나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체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 없습니다!

큰스님 고정된 게 없는 것이 공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 하나, 즉 말하자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의 노릇을 하고 형님의 노릇을 하고 아들의 노릇을 할 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껄껄하게 돌아가지 않죠? "아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아버지 노릇이 되고 "여보!" 하면 자연적으로 남편 노릇이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 노릇이 되고. 아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작용을 할 때에, 어떤 걸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가 한 건데 어떤 거를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노라' 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자꾸 변하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무' 했던 거고 '나는 한 게 없노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다면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신계 50%와 물질계 50%가 서로 작용하고 돌아가는 이 세계 진리를, 우주 진리를 잘 아신다면 머리가 다리고 다리가 머리라고 해도 이거는 다 알게 됩니다. 지구가 돌아갈 때에 머리나 다리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우리 자체가 모두 지구의 한 벌레라고 할까, 한 인간이라고 할까. 지구에 붙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리문도 없는 버스에 타고 만약에 어디를 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 알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아무리 돌아도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갈

☞ A18면으로 계속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